

벧전 1 : 18~19

이 명 직 목사(1896. 12. 2~19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님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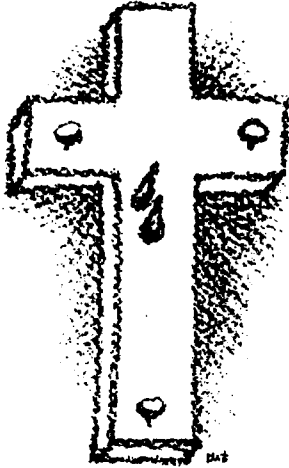
1. 보 혈

이 세상에 보배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이상의 보배는 없을 것이다. 사람이 금은보옥(金銀寶玉)이 없이는 죽지 아니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은 반혈증 환자가 피가 없이는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다를 없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범죄하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었다. 어찌 그 짐승의 피에 능력이 있겠는가. 그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가 있었다. 좌우간 피라는 것은 그 가치가 귀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능히 움직일 만한 힘이 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한 토인(土人)이 추장에게 범죄하여 추장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선교사가 처형을 당하는 토인을 붙잡혀 여겨 그 사람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다. 그래서 선교사는 중상을 당하고 토인은 무사하게 되었다. 추장은 선교사가 중상을 당하여 그 몸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토인이 비록 죽지 아니 하였으나 선교사의 피를 처형될 토인의 피로 간주하고 토인을 용서하였다. 이는 곧 피의 힘이다.



사람이 한 개인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도 그 생명을 속할 수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뿐이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체적으로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피를 흘리셨고 로마병정의 창에 찔려 피흘리셨으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다. 어찌 그리스도의 이 피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나 의인과 열사가 흘린 피와 같다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히 10 : 29) 그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리 명료하게 설명한다 하여도 그 귀함을 다 알 수가 없고, 그 가치도 그 권능도 다 알 수가 없다. 오직 그 보혈을 체험하지 아니 하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혈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꿀을 먹어 보지 못하고 꿀 맛을 설명할 수 없음과

같고, 친히 금강산을 보지 못 하고서 금강산을 소개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든지, 듣기만 한다든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1) 중생 : 중생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골 3 : 1)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중생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요 1 : 12).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보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소위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상

원죄는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사탄의 유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죄를 유업으로 받들리 만무하다.

관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요 6 : 5) 라고 하셨는다. 이 말씀은 곧 그 피를 믿어아만 영생을 얻는다는 가르침이다. 그런즉 먼저 확실한 중생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체험해야 할 것이다 (히 9 : 14)

2) 성결 : 성결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마음의 불결, 즉 원죄에 대한 청결이다. 어떤 사람은 이 원죄의 청결을 심히 의심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만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아니 하는 것이다. 원죄는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사탄의 유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죄를 유업으로 받들리 만무하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성결케 속량하시려 하신다. 그러므로 기록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 9 : 14) 라고 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요일 1 : 7) 고 명백히 언약하셨으니, 만일 믿지 아니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무능력한 거짓된 것으로 여김이다 (히 10 : 29). 그런즉 피로말미암아 명백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보혈의 증거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증거할 수 없다. 가령 금강산을 실제로 유람한 사람이라면 금강산의 산수가 수려함을 그가 본 사실대로 그의 소감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한번 금강산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정을 역력하고 소상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함에도 심령상의 명백한 경험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증거할 용기도 없을

보혈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보혈로 말미암아 명백히 중생하고 성결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며 타인에게 핍박을 받지 아니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는 이 일에 증인이라 하셨고(눅 24:48), 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고 하였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각각 자신들이 친히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였다. 실험자(實驗者)가 아니면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철저하게 체험하고 명백하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며, 보혈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보혈로 말미암아 명백히 중생하고 성결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며 타인에게 핍박을 받지 아니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면 어리석다는 비평을 듣게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밖에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소위 신학자, 교역자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서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와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였다(행 4:12).

보혈을 증거하자. 미신자에게도 증거하고 신자에게도 증거하자. 거리에 서도 증거하고, 강단에서도 증거하자.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 하며, 보혈이 있는 곳에는 지옥의 불도 꺼진다. 보혈의 체험이 없으면 할 수 없거니와 있다면 명백히 힘있게 증거하라.

4. 보혈은 천국의 영광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천국에서 뵈을 때에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뵈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알아 볼 수 있을까? 일찍 죽임을 당함 같은(계 5:4)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

천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며,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뿐일 것이다.

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영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이 변하여 체질이 되셨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혹 유감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무한한 행복이 되었다. 천국에서의 찬송의 주제는 오직 예수의 보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모든 찬송이 다 폐지가 되어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의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그 곡조가 새롭고 그 소리가 높을 것이다(계 5:6).

천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며,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뿐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피를 체험한 자가 아니면 천국 성감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그 찬송의 의미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계 7:14). 천국의 찬송은 그리

스도의 피뿐이며, 천국의 들어간 성도들의 의복은 모두 흰옷이다. 그 흰옷은 오직 어린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희게 된 것이다(계 7:14).

천국의 성결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뿐이니, 천국에서 화려한 신부의 예복을 예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 의상은 물론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다(계 19:13). 마치 전장(戰場)에 나아갔던 군사가 영광스럽게 개선할 때에 탄환 맞고 피 묻은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것은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포도즙으로 그 피 흘리심을 기념하나 그 때에는 실제로 그 피에 흔적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피를 높이고 찬양하여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다. **【必矣】**

〈본고는, 이명직목사의 설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근목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